

9월 21일

여행의 발견, 타자의 표상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총서) 제1권

김 중 철 |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 기 재 |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 연구소' 연구원
강우원용 |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Post-doc
김 현 숙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최 혜 주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김 진 량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문 소 영 | 충남대학교 강사
박 찬 승 |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찬승 장미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총서) 제1권
여행의 발견, 타자의 표상

초판1쇄 발행 | 2010년 5월 31일

엮은이 박찬승 펴낸이 홍기원

출판 홍중화
디자인 정준경·강계영
편집 오경희·조정화·오성현·신나래·남궁현
관리 박정대

패넉민 민속원 출판등록 제18-1호
주소 서울 마포구 대흥동 337-25 전화 02) 804-3320, 805-3320, 806-3320(대) 팩스 02) 802-3346
이메일 minsok1@chollian.net 홈페이지 www.minsokwon.com

ISBN 978-89-5638-958-5 93380

© 박찬승, 2010
© 민속원, 2010

* 책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잘못된 책은 마auer 드립니다.
* 판가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재발합니다.

민속원

‘국민작가’가 스쳐간 민주와 ‘무명작가’가 발견한 민주 || 강우원용 _ 84

-나쓰며 소세기와 기아마 쇼헤의 경우-

- 1. 들어가며-국민작가와 무명작가의 대비 85
- 2. 계기-여행의 ‘공포’과 ‘사秘’ 89
- 3. 흔적-어디를 거쳐 무엇을 남겼나 94
- 4. 태도-차 인의 여행과 차창 밖의 세계 98
- 5. 나오며-체함과 기록, 본 것과 쓰는 것의 긴급 111

책을 내면서 4

제1부 여행의 발전

근대 기행 담론 속의 기차와 차내 풍경 || 김중철 _ 12

-1910~20년대 기행문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는 말 13
- 2. 근대 기행문이 그리는 기차의 형상 15
- 3. 근대 한국인의 기차 체험 29
- 4. 나오는 말 43

근대 관광 잡지 『관광조선』의 탄생 || 서기재 _ 46

- 1. 머리말 47
- 2. ‘대중’을 향한 잡지 『관광조선』 49
- 3. 잡지의 시각적 효과와 ‘여자’ 56
- 4. 전락으로서의 『관광조선』 64
- 5. 『관광조선』의 〈특집클럽〉 74
- 6. 결론 81

제2부 타자의 표상

서양인 여행기에 표상된 ‘공존·공생’의 조선 사회상 || 김연숙 _ 116

- 1. 문제제기 117
- 2. 생태적 삶의 표상과 생활규범 120
- 3. 친족공동체와 ‘재분배’ 습속 132
- 4. 호혜의 사회조직과 정화기제 142
- 5. 나가는 말 155

『조선시베리아기행』에 보이는 야즈 쇼에이의 조선 인식 || 최혜주 _ 158

- 1. 머리말 159
- 2. 야즈 쇼에이의 여행 일정과 제국의식 161
- 3. 야즈 쇼에이의 조선 인식 186
- 4. 야즈 쇼에이의 조선 인식의 특징 199
- 5. 맺음말 203

근대 일본 유학생의 공간 체험과 표상 || 김진향 _ 208

-유학생 기행문을 중심으로-

- 1. 들머리 209
- 2. 유학생 기행문: 개학의 답론 또는 답론의 개화 210
- 3. 근대 학교 제도와 시각의 균질화 212
- 4. 공간 체험의 재구성과의미화 222
- 5. 또 다른 시작: 유학생의 귀국 242

식민통치 표상 공간 경주와 투어리즘 || 윤소영 _ 246

-1910~20년대 일본인의 여행기를 중심으로-

- 1. 들어가는 말 247
- 2. 식민통치의 표상 공간, 경주의 탄생 249
- 3. 일본 지식인이 본 경주 고적 259
- 4. 경주 여행의 대중화와 고적 예찬의 식민성 268
- 5. 나가는 말 279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일본시찰 || 박진승 _ 282

-1920년대 이후 이른바 '내지시찰단'을 중심으로-

- 1. 머리말 283
- 2. 1920년대 이후 조선인의 '내지시찰' 286
- 3. 도시와 문화유적에 대한 시찰 소감 307
- 4. 맺음말 332

제1부 여행의 발견

근대 기행 담론 속의 기차와 차내 풍경 || 김중철
-1910~20년대 기행문을 중심으로-

근대 관광 잡지 『관광조선』의 탄생 || 서기재
'국민작가'가 스쳐간 만주와 '무명작가'가 발견한 만주 || 강우원용
-나쓰메 소세키와 기야마 쇼헤이의 경우-

였다.²⁶

한편 총독부 산하 관리들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하여 일본 시찰단 내지 관광단이 가장 많이 건너간 것은 1922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쿄에서는 1922년 3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평화기념박람회 가 열렸다. 여기에는 4백 평 규모의 조선특설관도 설치되었는데, 조선 총독부는 2백여 명의 조선인·일본인이 참여하는 조선협회회를 만들 어, 이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협찬회는 조선산 물품을 출품하는 일 외 에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이 박람회에 단체 관람을 하는 일에도 협조하게 되었다. 협찬회의 활동 때문인지 이 박람회에는 많은 이들이 관광단을 조직해서 도쿄에 건너갔다. 3월부터 5월 10일까지 약 두 달 사이만 해도 47개 단체 3,519명이 박람회에 관광차 동경에 갔는데, 이 가운데 조선인이 3,002명, 일본인이 517명이었다고 한다. 두 달 사이에 약 3천 명의 조선인이 다녀간 것으로 추계를 해보면, 이 박람회에는 약 6천 명의 조선인이 다녀오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도쿄의 박람회만을 보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도에 여러 도시를 들렀을 것이고, 또 도쿄에서 여러 날 체류하면서 시내도 관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²⁷ 이들 대규모 시찰단 파견은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기보다는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1만 7천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12개 단체 4백여 명을 ‘평화기념 도쿄박람회 시찰단’의 이름으로 일본에 보냈다고 한다. 이 대규모 시찰단에는 면직원, 흥흥회 회원, 청년회원, 유도개명회 회원, 산업단체원, 학교 교원, 금

음조합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⁸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1920년대 총독부는 총독부가 직접 주관하거나, 각 도에서 주관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일본에 ‘내지시찰단’의 이름으로 보냈다. 이에는 군수, 면직원 등 관리층을 비롯하여, 도평의원, 면협의원 등 관변의 공직자들, 그리고 교원, 청년, 유교개명회원, 금융조합 임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들이나 관변의 인물들로서 총독부에 이미 협력하고 있거나 앞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1930년대 이후의 시찰단

사이토 총독이 물러가고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이 새로 부임한 1930년대 전반기에는 특이하게도 시찰단 파견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총독부의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우가키 총독의 시정 방침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우가키 총독의 말년인 1935년 10월에야 평안북도에서 도회 의원 10명을 선진농촌 시찰의 이름으로 큐슈지방에 파견한 것이 눈에 띈다.²⁹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이 부임한 이후 ‘내지시찰단’ 파견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1937년 6월에는 경성부 학무과에서 초등교원 13명을 주요 도시의 문화발달, 교육상황, 지방시설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에 파견하였다.³⁰ 1937년 11월에는 경기도 학무과에서 사립중등학교 교원 10명을 역시 시찰을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하였다.³¹ 1938

28. 『매일신보』(1922.2.19, 9.6).

29. 『매일신보』(1935.9.27).

30. 『동아일보』(1937.6.5).

31. 『동아일보』(1937.11.19).

26. 『매일신보』(1928.2.13).

27. 『東京における内地觀光圖 概況』, 『朝鮮』 87호(1922.6).

년 5월에도 경성부 학무과에서는 공사립 초등학교원 15명을 선발하여 학사시찰을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하였다.³² 같은 시기 경기도에서도 청년단원 15명과 소학교 교원 3명을 선발하여 일본의 청년단 활동 상황과 문화시설의 견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하였다.³³ 1937년과 1938년 두 해 동안 경기도와 경성부의 학무과에서는 교원과 청년단원의 '내지파견'에 각별히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뒤,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파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38년 5월에는 경성부에서 군수품 하청 희망자 15명을 선발하여 일본의 군수공업 시찰을 위해 일본의 군수공장들이 있는 도시에 파견하였다.³⁴ 1939년에는 조선지원병훈련소의 지원병 3백 명을 3반으로 나누어 일본의 각 도시의 '총후보국銃後報團' 시찰 및 '신사참배'를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동경 시내에서 가두행진을 하기도 하였다.³⁵ 1940년에는 조선방공협회 충남지부에서 각 방공단의 대표들을 일본에 파견하였다.³⁶

또 한편에서는 1939년에 경성부의 부회의원 17명, 인천부의 부회의원 8명이 선진도시 시찰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되었고,³⁷ 1942년에는 경성부의 정무 총대總代 11명이 역시 선진도시의 린조隣組의 활동 상황과 익찬운동翼贊運動을 시찰한다는 목적으로 파견되었다.³⁸ 또 1942년에는 황해도에서 우량 음면장 20명이 선진도시 시찰 및 성지참배의 목적으로

32. 『매일신보』(1938.5.14).

33. 『동아일보』(1938.5.28).

34. 『동아일보』(1938.5.5).

35. 『동아일보』(1939.11.3, 11.9).

36. 『동아일보』(1940.3.21, 5.19).

37. 『동아일보』(1939.9.21, 10.5).

38. 『매일신보』(1942.2.14).

로 파견되었고, 강원도에서도 우량 청년단원 21명이 성지 순배를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³⁹ 총력전 체제 하에서 이를 선도할 사람들이 일본에 파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942년 말 이후에는 이렇다 할 시찰단 파견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어려워지면서 총독부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1944년 여름 이후 도쿄 등 일본 주요 도시에 공습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등이 관련이 있지 않나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 것처럼 1930년대 이후 시찰단의 파견은 중일전쟁 발발 이전에는 주로 교원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쟁협력과 황국신민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를 이끌 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내지시찰단'의 여정課程과 주요 시찰 시설

(1) 시찰단의 여정

'내지시찰단'의 시찰 여정은 대개 비슷하였다. 물론 참여자의 성격이나 시찰의 목적에 따라 여정이 다소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여정에 반드시 들어가는 도시와 장소들이 있었다. 몇몇 주요 시찰단의 여정을 검토해보므로써 '내지시찰' 코스의 성격을 짚어보기로 하자.

① 충청남도 군수·면장·진흥회장의 내지시찰단(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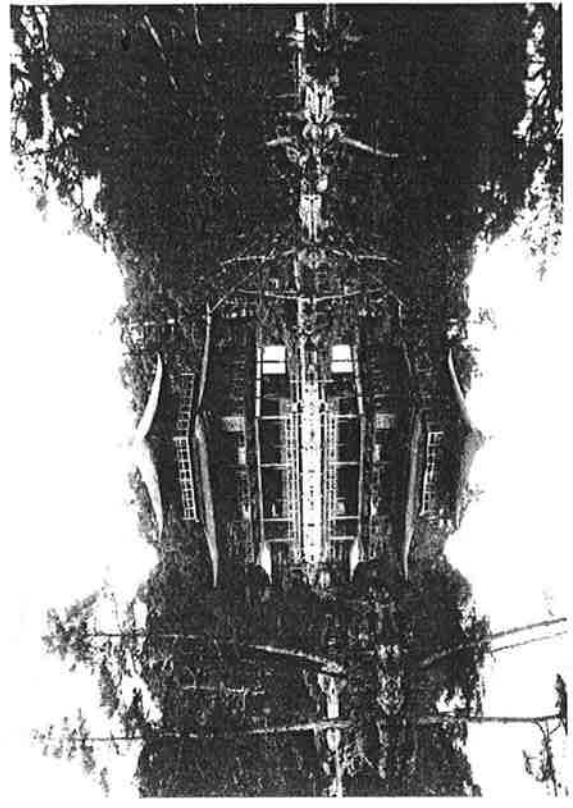
공주 - 대전 - 부산 - 시모노세키下關 - 모지門司 - 오이타大分(큐슈) · 오

39. 『매일신보』(1942.10.25, 11.15).

키나와 팔연연합공진회 九州沖繩八縣聯合共進會) - 코쿠라나카(제당공장) - 시모노세키下關(구산신사 龜山宮神社) - 오사카大阪(오사카수도大阪水道 - 오사카성大阪城 - 중앙인촌주식회사 - 오사카이사하신문사 - 유리제조 공장 - 오사카방적회사 - 조폐국 - 공설시장) - 나라奈良(이코마군生駒郡 키타야마토촌北條村(모범농촌) - 나라공원奈良公園 춘일사春日寺, 대불전 大佛殿) - 교토京都(진종眞宗 본원사本願寺 - 구공황궁 - 모모야마桃山 어룡 御陵 - 노기신사乃木神社 - 비와코琵琶湖 통수원지通水源池 - 청수시清水寺) - 이세신궁伊勢神宮 - 나고야名古屋 - 시즈오카현靜岡縣 하마나군濱名郡 세 키시촌横志村(모범농촌) - 도쿄東京(도쿄역 - 히비야日比谷공원 - 국회의사당 - 메이지신궁 - 국기관 - 위생박람회 - 이사쿠사淺草공원 - 대송요 리점大松料理店 - 미쓰코시오복점三越呉服店 - 우에노노야공원 -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 고리쿠엔後樂園 - 도쿄연극장東郷演劇場) - 요코스카橫須(포 병공장砲兵工廠) - 닛코日光(동조궁東照宮) - 도쿄 - 나고야名古屋(이토오부 집伊藤呉服店) - 시모노세키下關 - 부산 - 조치원

② 강원도 면직원, 흥풍회원, 청년회원, 유도개명회원, 산업단체원, 학교교원, 금융조합원의 '평화기념도쿄박람회 시찰단'(1922)

제천 - 조치원 - 부산 - 시모노세키下關 - 교토京都(어룡御陵 - 노기신사 乃木神社 - 막물관 - 금각사金閣寺 - 동본원사東本願寺 - 서본원사西本願寺 - 지은원知恩院 - 삼심삼간당三三間堂) - 오즈大津(삼정사三井寺) - 비와코琵琶湖 - 도쿄東京(국회의사당 -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 - 이왕세자저李王世子邸 - 메이지신궁明治神宮 - 포병공창 - 이사쿠사淺草공원 - 제국대학帝國大學 - 미쓰코시오복점三越呉服店) - 닛코日光(동조궁東照宮) - 나라奈良(키스가신사春日神社 - 동대사東大寺 - 이코마군生駒郡 키타야마토촌北條村(모범농촌) - 오사카大阪(공동속막소 - 아동상담소 - 천왕사天王寺공원 - 시



교토 금각사

* 출처 : 小川一真, 『日本風景風俗帖』, 1910

민박물관 - 통천각通天閣 - 오사카시청 - 시민공회소市民公會所 - 조폐국造幣局 - 방적회사 - 오사카성大阪城 - 미야지마현宮島縣 이즈쿠시미嚴島(이즈쿠시미신사嚴島神社) - 시모노세키下關 - 부산

③ 전남 면직원 시찰단(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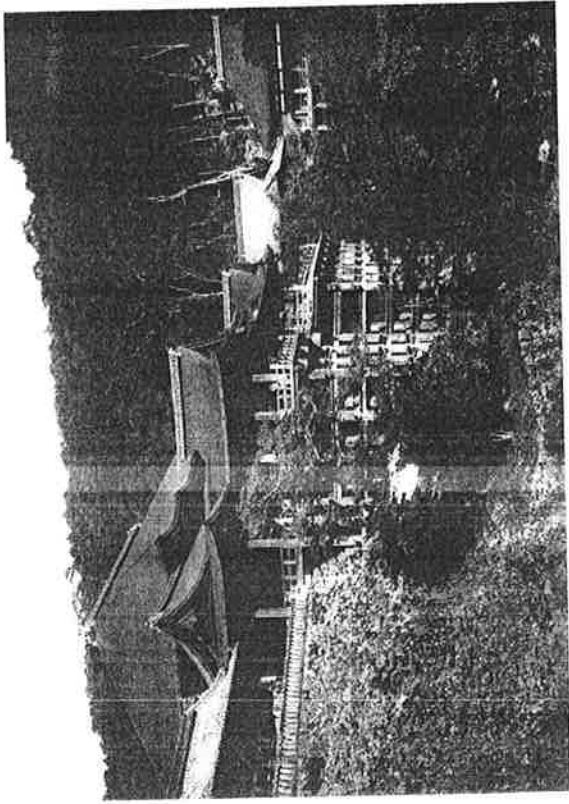
부산 - 시모노세키下關 - 이즈쿠시미신사嚴島神社 - 쿠레군항吳軍港 - 카모군賀茂郡 히로무라廣村 - 오사카大阪(조폐국 - 이사하신문사朝日新聞社 - 다카시마야오복점高島屋呉服店 - 오사카성大阪城) - 나라奈良(가스가신사春日神社 - 대불大佛) - 오사카大阪 - 교토京都(모모야마어룡桃山御陵 - 동본원사 - 금각사 - 청수사 등) - 야스군野洲郡 오즈무라小津村(모범농촌) - 도쿄東京(메이지신궁明治神宮 - 신주쿠교엔新宿御苑 -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⑤ 총독부 학무과에서 주관한 조선인 여자 교원 30명의 '대례봉배여자교원단체
禮拜女子敎員내지시찰단'(1929)

부산 - 시모노세키下關 - 이즈쿠시미嚴島(이즈쿠시마신사嚴島神社, 대
원공원大元公園, 홍염곡紅葉谷, 친첨각千疊閣, 이즈쿠시마심상고등학교
嚴島尋常高等小學校) - 오사카大阪(집영소학교集英小學校, 축항築港, 오사카
이사히시문사大阪朝日新聞社, 오사카마에니치신문사大阪毎日新聞社, 다이
마루오복점大丸呉服店, 교통전기박물관交通電氣博覽會, 사카이시립고등여
학교堺市立高等女學校, 대화천염공소大和川染工所 - 사카이시수족관堺市水族
館) - 교토京都(교인御苑, 로보봉배궁齋奉拜,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奈良女
子高等師範學校, 나라공원奈良公園, 대불전大佛殿, 카스가신사春日神社, 와카
쿠사야미若草山, 타무케야마신사手向山神社, 이월당二月堂, 삼월당三月堂)
- 야마타山田(이세대묘伊勢大廟 참배參拜, 징고관徴古館, 왜희궁倭姫宮) -
도쿄東京(궁성참배宮城參拜, 사회국社倉局, 도쿄일일신문사, 사이토齋藤총
독 저택, 우에노공원上野公園, 아사쿠사공원淺草公園, 괴복장격被服廠跡,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 친악사泉岳寺, 노기대장乃木大將 저택, 메이지신궁,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미쓰코시三越, 신주쿠교엔新宿御苑, 자유학원自由
學園, 이케다화학학池田化學공업회사, 관병식觀兵式, 이왕저택李王邸宅) - 교
토京都(대례식장大禮式場, 릿세이심상소학교立誠尋常小學校, 모모야마어룡
桃山御陵, 히에이잔比叡山) - 대사대社(이즈모타이사出雲大社) - 시모노세키
下關 - 부산

⑥ 평안도 도회원의 신진촌 시찰(1935)

이키타현秋田縣 유리군由利郡, 후쿠오카현福岡縣 다테군伊達郡, 아이치
현愛知縣 헤키카이군碧海郡, 효고현兵庫縣 인나미군印南郡



교토 침수사

※ 출처 : 小川一真, 『日本風景風俗帖』, 1910

- 이왕세자저 - 발명박물관 - 니시타마군西多摩郡 토쿠리촌戸倉村 - 시모
노세키下關

④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한 군수 30명의 내지시찰(1926)

시모노세키下關 - 모지門司(아하다제철소八幡製鐵所, 나카가우치저수지
中河内貯水池, 미루야마학원丸山學院) - 하카다博多(현청縣廳) - 후쿠오카福
岡(서공원西公園, 후쿠오카일일신문사福岡日日新聞社, 이소노주조소磯野鑛
造所, 의과대학, 농과대학, 기기발전공흥崎八幡宮, 다자이푸덴만구太守府
天滿宮, 관세음사觀世音寺, 농학부 부속농장, 상품진열소) - 사세보佐世保
군항軍港(해군海軍 진수부鎮守府)

① 황해도 우량읍면장의 선진도시 시찰 및 성지참배(1942)

도쿄, 오사카大阪, 나리奈良, 이세伊勢, 닛코日光, 뱃부別府, 가코시미龜
兒島,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등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⑥, ⑦의 경우처럼 특별한 목적, 특히 농촌시
찰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그 여정이 비슷하
였다. 즉 시모노세키下關 - 오사카大阪 - 교토京都 - 나리奈良 - 도쿄東京 -
닛코日光 코스가 대체로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나고야名古屋가 들어가
는 경우도 있었다. 이 코스 가운데 오사카大阪는 근대적인 도시의 시
찰로서 의미가 있었고, 교토京都와 나리奈良는 역사도시의 시찰로서 의
미가 있었다. 그리고 도쿄東京는 두 가지 모두의 의미를 가졌으며, 닛
코日光는 휴양지와 역사유적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시찰단은 시모노세키까지만 배로 여행하고 나머지 여정은 모두 기
차로 여행을 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조선통신사가 오사카까지 해로
를 통해 배로 여행하고, 오사카에서 교토, 나고야를 거쳐 에도江戸(오
날날의 도쿄東京)까지는 육로 또는 수로를 이용하였던 것과 비교된
다. 시모노세키에서 도쿄까지 철도가 가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배로 여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닛코日光의 동조宮東照宮
은 1636년 이후 조선통신사가 몇 차례 들렀던 곳이기도 했다.⁴⁰

(2) 주요 시찰 시설

그러면 시찰단은 이들 도시에 들러 무엇을 보았을까. 그들이 둘러
보았던 곳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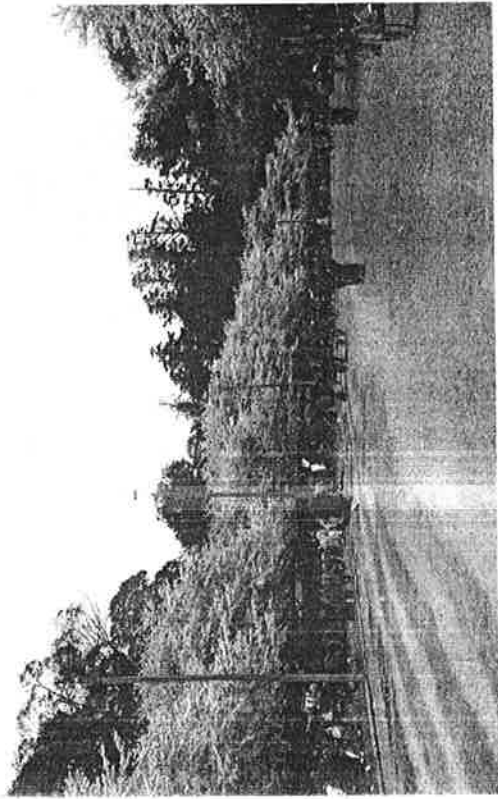
① 도시의 근대적인 시설

시찰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역시 도시의 근대적인 시설들이
었다. 시찰단들은 주요 도시에 들어가면 우선 그 도시의 시역소 등
행정관청에 들어가 브리핑을 받았다. 총독부에서 파견한 이들의 경
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어서 그들은 관청가, 공원, 백화점거
리, 신문사, 조폐국, 고급음식점, 박물관, 그리고 박람회 등을 둘러
보았다.

그들에게 가장 감명을 준 도시는 도쿄와 오사카였다. 도쿄에는 국
회의사당을 비롯하여 관청가에 수많은 관청 건물이 있었다. 또 그들
이 반드시 들른 곳은 히비야日比谷공원이었다. 당시 도쿄에는 수십 개
의 공원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공원인 히비야 공원은 그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또 도쿄에서 가장 큰 공원인 신주쿠교엔
御苑에 반드시 들렀다. 그밖에도 도쿄의 우에노上野공원과 아사쿠사淺
草공원, 교토의 교토교엔京都御苑도 빠지지 않는 코스였다. 도시의 공
원은 대부분 이전에 황족이나 사족들의 저택이 메이지유신 이후 공
원으로 바뀐 것인데, 일본의 근대 도시가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시찰단 일행은 긴자銀座 거리의 수많은 백화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이 반드시 들른 곳은 백화점 중의 백화점이었던
미쓰코시三越呉服店였다. 미쓰코시는 도쿄와 오사카에 있었다. 그들은
또 대부분의 경우 아사히신문사나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 오사카아
사히신문사에 들러 신문사의 여러 시설, 특히 운전시설을 둘러보았
다. 그들은 또 오사카에 들렀을 때는 반드시 조폐국에 들러 화폐와
동전을 찍어내는 시설들을 시찰하였다. 또 조선인 고위관리들의 경
우에는 일본측 관청들로부터 일식집이나 양식집에서 융숭한 식사 대
접을 받았다.

40_ 강재연,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한길사, 2005), 140-163쪽, 1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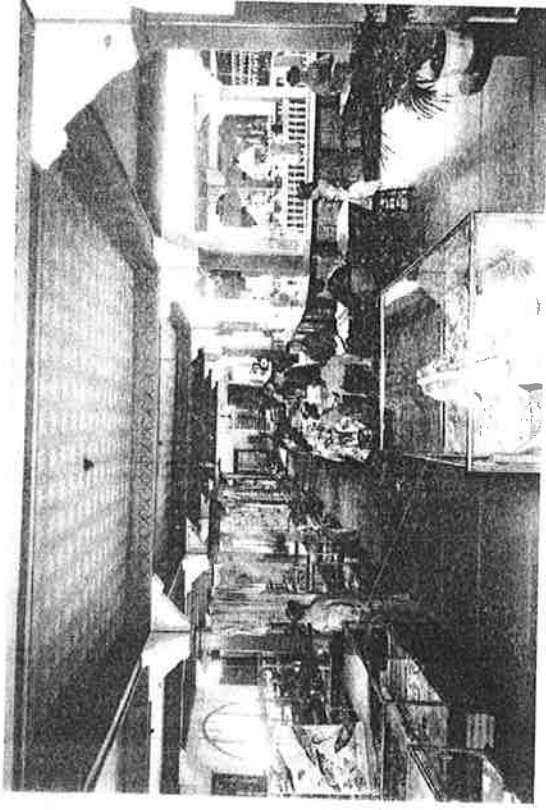
우에노공원 밖꽃

※ 출처 : 小川一眞, 『日本風景風俗帖』, 1910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들렀던 곳은 박람회장이나 전시관이었다. 그들이 찾은 박람회는 다양했다. 지방 물산을 전시하는 공진회부터 시작하여, 발명박람회, 동아박람회, 교통전기박람회 등이었다. 전시관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하는 곳이었고, 시찰단 일행은 대부분 이곳에서 물건들을 사가지고 나왔다.

② 도시 주변의 천황초를 관련 유적, 신사(神社), 시찰(寺刹)

시찰단 일행이 다음으로 많이 들른 곳은 천황 관련 유적과 신사, 사찰 등이었다. 이러한 유적지들은 바로 일본의 전통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에게 일본 문화는 여전히 낯선 것이었다. 또 조선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 문화를 낮추어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측의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에게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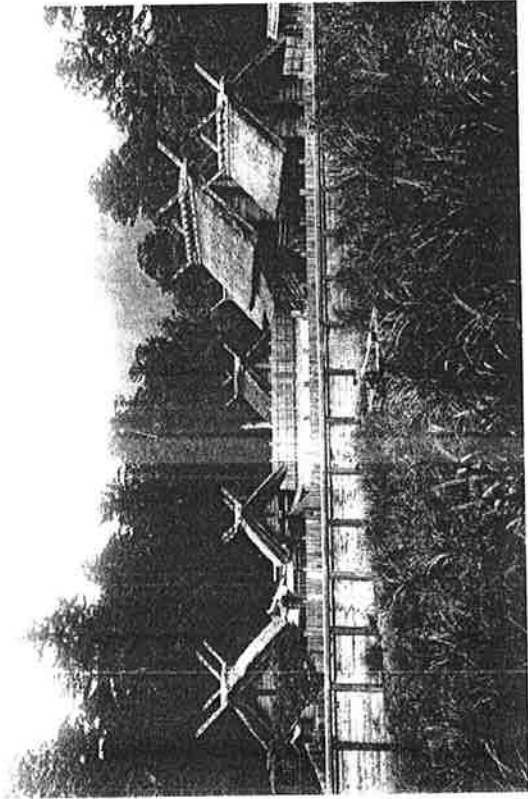


미쓰코시오복점

※ 출처 : 小川一眞, 『日本風景風俗帖』, 1910

본 문화의 우수성, 우수성 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천황 관련 유적으로는 도쿄의 궁성(皇城), 교토의 고쇼(御所)가 가장 중요하였다. 그리고 메이지신궁(明治神宮)과 이세신궁(伊勢神宮)도 역시 중요한 유적지였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시찰단들은 도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궁성 앞으로 달려가 궁성요배를 하였다. 교토의 고쇼는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이 도쿄로 옮겨가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었다. 또 시찰단은 교토에서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의 능인 모모야마(桃山 어릉(御陵))에 들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도쿄에서 메이지신궁은 빼놓을 수 없는 시찰 코스였다. 이세신궁(伊勢神宮)은 나고야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이세(伊勢)시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일본 천황의 조상으로 숭배받는 천조대신(天照大神)을 받드는 신궁이었다. 따라서 이곳도 일본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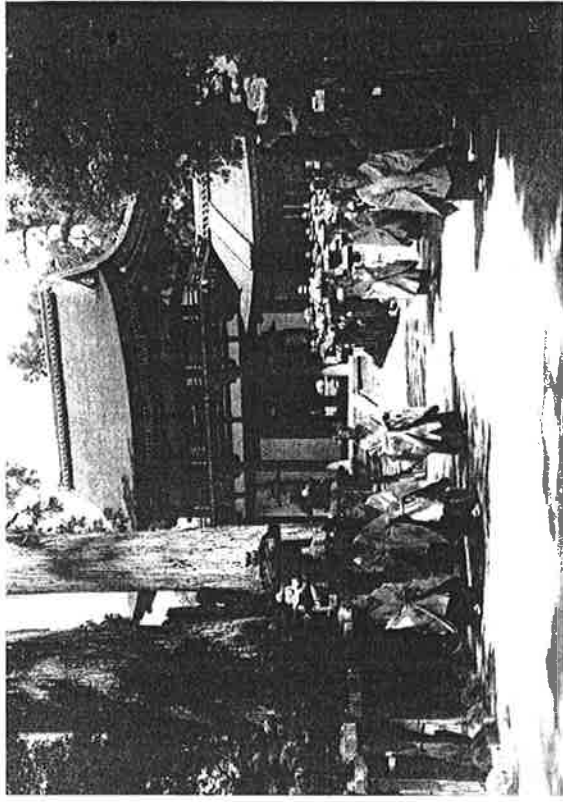


이세신궁

※ 출처 : 小川一眞, 『日本風景風俗帖』, 1910

찰단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그밖에 교토에서 신무천황을 받드는 카시하라신궁(橿原神宮)을 들르는 경우도 있었다.

시찰단이 주로 찾은 신사(神社)로서는 교토의 노기신사(乃木神社), 나라(奈良)의 카스가신사(春日神社), 도쿄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등이 가장 중요한 신사였다. 노기신사(乃木神社)는 러일전쟁, 특히 여순전투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결국은 승리를 이루어낸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대장을 받드는 신사였고, 카스가신사(春日神社)는 710년에 창건된 아주 오래된 신사였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을 합성한 신사였다. 야스쿠니에 합사된 이들이 관계한 전쟁들은 메이지유신 전후의 내란(7,751명), 서남전쟁(6,971명), 일청전쟁(13,619명), 대만출병(11,30명), 북청사변(의화단사건, 1,256명), 일러전쟁(88,429명), 1차대전 및 시베리아출병(4,850명), 제남사건(산동



나라춘일사

※ 출처 : 小川一眞, 『日本風景風俗帖』, 1910

출병, 185명), 만주사변(17,161명) 등이었다.⁴¹⁾ 그밖에 이즈쿠시미(巖島)의 이즈쿠시미신사(巖島神社), 교토의 덴만구(天満宮) 등도 시찰단이 자주 들르는 신사들이었다.

시찰단이 자주 들른 사찰로서는 교토의 금각사(金閣寺)·청수사(清水寺)·동본원사(東本願寺)·서본원사(西本願寺)·지은원(知恩院)·삼심삼간당(十三間堂), 나라(奈良)의 동대사(東大寺)·범룡사(法隆寺), 도쿄의 아사쿠사공원(淺草公園)의 겐쇼지(淺草寺) 등이 있었다. 시찰단은 특히 교토의 동본원사나 청수사, 그리고 나라(奈良)의 동대사(東大寺) 대불대(大佛)의 규모에 다들 놀랐다.

41. 大江志乃夫, 『靖國神社』(岩波新書, 1984), 16쪽.

④ 우량 농촌

식민지 조선의 중심 산업은 농업이었다. 따라서 특히 하급관리들의 시찰에서는 반드시 일본의 우량농촌 시찰 코스가 들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우량농촌 시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량 농촌, 혹은 모범농촌이라 불리는 마을의 위치는 다양하였다.

1921년 충청남도 군수, 면직원들이 방문한 모범농촌은 시즈오카현 靜岡縣 하마나군 檜名郡 세키시촌 榎志村이라는 곳이었다. 1922년 강원도 면직원과 청년회원들이 방문한 모범농촌은 나라현 奈良縣의 이코마군 生駒郡 키타이마토촌 北條村이었다. 1923년 전남 면직원 시찰단이 방문한 모범농촌은 교토 부근에 있던 야스군 野洲郡 오즈무라 小津村이었다. 같은 해 황해도 연백군 면직원들이 시찰한 모범농촌은 히로시마 廣島 부근에 있던 아사군 安佐郡 카부초 加都郡과 나카하라 中原村이라는 곳이었다. 이들이 방문한 모범농촌은 대체로 시모노세키에서 도쿄에 이르는 철도 연변에 있는 마을들이었다. 즉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 체 시찰 코스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농촌 마을들을 선정하여 시찰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농촌시찰만을 목적으로 한 시찰단의 방문지는 이와는 달랐다. 1935년 평안북도 도회의원들로 구성된 농촌시찰단은 아키타현 秋田縣 유리군 由利郡, 후쿠오카현 福岡縣 다테군 伊達郡, 아이치현 愛知縣 헤키카이 군 豊海郡, 효고현 兵庫縣 이미나미군 印南郡 등이었다.⁴² 아키타현 秋田縣은 혼슈주 本州의 북쪽에 있는 농업지대였고, 후쿠오카현 福岡縣은 큐슈九州에 있었다. 이들은 대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곳들이다. 아이치현 愛知縣은 나고야 名古屋가 있는 곳이고, 효고현 兵庫縣은 고베 神戸가 있는 곳으로

42. 『매일신보』(1935.9.27).

혼슈주 本州의 근기 近畿지방에 속하는 곳이었다. 비교적 서로 떨어져 있는 농촌들을 선정하여 시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모범농촌에 들어가 무엇을 보았을까. 황해도 연백군 면직원들은 아사군 安佐郡 카부초 加都郡에 가서 정역장 町役場, 직물공장, 주농회 사무소를 보았고, 나카하라 中原村에 가서는 촌역장 村役場, 주물장 鑄物場, 표준농가, 우유착취장, 양조장, 소학교 등을 살펴보았다.⁴³ 전남 면직원들은 야스군 野洲郡 오즈무라 小津村을 찾았는데 우천으로 여러 곳을 시찰하지 못한 채 촌역장 村役場에서 마을의 실정을 보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이 마을의 주민들이 기어올려 가던 마을을 제미단 濟美團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어떻게 되살렸는지를 자세히 들었다고 한다.⁴⁴

3. 도시와 문화유적에 대한 시찰 소감

1) 일본 시찰의 전체적인 소감

‘내지시찰단원’들은 귀환한 이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나 『조선』에 시찰 소감을 실었다. 이제 이를 중심으로 그들의 시찰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을 살펴보자.

43. 李鍾詒, 「內地 順安로부터 歸來記」, 『조선』 76호(1924.1), 117쪽.

44. 『매일신보』(1923.5.13). 농촌시찰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자세히 정리할 예정이다.

(1)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1926년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보낸 내지시찰단에 참여한 이현태李鉉泰는 일본에서 인상 깊었던 것으로서, ① 삼림森林의 울창함과 산천의 명미明媚, ② 경지耕地的 정리와 농작農作의 모범, ③ 하천의 정리와 도로의 수축, ④ 공업의 발달과 과학의 연구, ⑤ 사회사업과 공민의 구제, ⑥ 고물古物보존과 미술의 발전 등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여러 문화시설들이 모두 인위적이고 금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면서, 유신 이래 동서양 문물을 수입하여 강족의 진보로 금일과 같은 동방 문화의 중심국이 되었다고 보았다. 즉 금일의 일본은 일본 국민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도 노력하면 그 이상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고, 게으르면 현상 이하의 멸망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⁵

1927년 군수 시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평남 덕천군수 공탁孔濼은 일본 시찰의 인상으로서 ① 공업의 왕성함, ② 울창한 산림, ③ 정리된 경지耕地和 풍요로운 농작물, ④ 잘 다듬어진 도로, ⑤ 근면한 국민성, ⑥ 도처에 널린 신사와 사찰, ⑦ 발달된 미술관, ⑧ 국민 일반의 높은 도덕심 등을 들었다.⁴⁶

1926년 강원도 고성군 주좌의 유림 및 면직원 시찰단에 참여하여 다녀온 최승호崔升鏞는 시찰 소감으로 ① 발달된 농업, ② 울창한 수목, ③ 발달된 교육기관(학교), ④ 도처의 공장, ⑤ 상품진열관과 백화점, ⑥ 위생관념의 발달, ⑦ 편리한 교통 등을 들었다.⁴⁷

1921년 경기도 진위군 시찰단으로 큐슈九州 지방을 다녀온 이들은

45. 李鉉泰, 「내지시찰감상담」, 『조선』 105호(1926.7), 59-60쪽.
 46. 孔濼, 「내지시찰감상」, 『조선』 113호(1927.3), 38-43쪽.
 47. 崔升鏞, 「내지시찰감상담」, 『조선』 101호(1926.3), 52-54쪽.

시찰 소감으로 다음과 같은 15개 항을 지적하였다. ① 내지 풍광의 아름다움에 놀랐다. ② 내지인은 노동에 의외로 근면하였다. ③ 조선에 있는 내지인보다 내지의 내지인은 친절하였다. ④ 가옥이 넓고 청결하다. ⑤ 어떠한 곳에도 밭이 있고, 한지開墾地가 없다. ⑥ 농가가 다 부유하다. ⑦ 삼림의 울창함에 놀랐다. ⑧ 도로가 양호하고 교통기관이 정비되어 있다. ⑨ 골목이 많은 것을 보아 공업의 발달함을 알 수 있었다. ⑩ 조선에서 내지로 이주코자 하는 희망이 생겼다. ⑪ 내지인이 조선인을 경멸치 아니하였다. ⑫ 중국인이 적었다. ⑬ 도로 통행 중 내지인은 우리 단체를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나쳐 인격의 고상함을 느낄 수 있었다. ⑭ 학교가 많았다. ⑮ 촌역장村役場의 건물이 넓고 컸다.⁴⁸

그러나 하면 1914년 매일신보의 시찰단으로 다녀온 함남의 이동호李秉鏞는 일본과 일본인의 특징으로서 ① 근면, ② 고적보존, ③ 도회의 융화融和, ④ 불교의 미신, ⑤ 신경의 예민 등을 들기도 했다.⁴⁹ 이러한 특징은 물론 조선, 조선인과의 대비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특히 조선에 비해 일본은 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불교를 믿는 이들이 많지만 그것이 국성國性에 배치되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일본인은 신경이 예민하고, 감정이 천연淺薄하고, 용서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일부 사람들은 일본 여성들의 노동이 활발한 점을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권영달權榮達은 “때는 마침 대소맥大小麥의 제초, 시비施肥, 기타 밭의 수입시계手時季이었으므로 전야田野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바, 대부분은 여자들이다. 도처의 각 공장

48. 「내지시찰소감」, 『매일신보』(1921.5.2).
 49. 李秉鏞, 「내지시찰의 감상」, 『매일신보』(1914.5.13).

업의 발달, ② 울창한 삼림, ③ 근대화된 도시, ④ 많은 신사와 사찰, ⑤ 정비된 경지와 잘사는 농촌, ⑥ 교육기관의 정비, ⑦ 편리한 교통, ⑧ 여성노동 등을 주된 소감으로 꼽았다. 일본 시찰은 이에 참여한 이들의 일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시찰단원들의 일본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인상 표명은 총독부의 '내지시찰' 기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한 시찰단원은 "내지의 각 방면에 혹은 물질적이든지 혹은 정신적으로 진척된 것은 매거키 어려우나, 실로 예상외로서 초견자初見者로 하여금 극구 상찬케 하는 그 감흥은 진실로 켈로써 다 쓰기 어려우며 말로써 다 하기가 어렵도다."라고 할 정도로 시찰 여행의 충격은 컸던 것이다.⁵³

(2) 일본에 대한 선망과 조선에 대한 비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찰단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은 일본의 문명이 단순히 메이지유신 이후에 발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진안 사람 이동한李東漢은 "세상이 왕왕히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의 발달이라고 생각하는 자 있는 것 같으나, 금회 우리의 실제 본 감상으로는 유신 전은 어느 정도까지 진보치 못한 점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금일 민성民性의 훈육, 국보國寶 물질物微 高品古品 등에 의하여 소급해 생각할 때는 기술 기타 방면이 최근의 발달이라고 말하지 못하겠고, 오히려 건국 이래 상당히 진보 발달하였던 것이 유신維新 이후 구주歐洲 문명제도의 신시조新思潮를 받아 들여 발달의 도度を 농후케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

53. 崔升鎬, 앞의 글(1926.3), 54쪽.

에는 여직공女職工이 반수 이상을 점하고, 기타 일반에 걸쳐서 도회 노동 상황을 보아도 남녀의 구분이 없이 같이 노동을 함은 참으로 보지 못한 탄상鞭撻을 할밖에. 참으로 남녀동등의 책임을 가진 느낌이 없지 않은지라."라고 하면서, 조선에서 하층 여성들만이 노동하고 다른 여성들은 남지들에게 일생을 의지하고 살면서 가사노동 정도만을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는 앞으로 여자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활발히 하여 여자들도 남지들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⁵⁰ 유치복俞致福도 "내지의 여자들은 많이 노동에 복무하는데, 종류 이하의 부인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농사에 종사하며, 기타 도시에 있는 각 공장에서도 다수의 여자 직공이 있음은 실로 감심感心을 금치 못하였다. 그 근로 상황을 보면, 모두 충실히 종업하는 모양이었다. 우리 조선에도 조속히 고루한 인습을 타파하고 속히 여자가 노동에 복무하도록 하지 아니치 못할 것을 느꼈으며, 귀선歸鮮 후는 자기는 물론이고, 일반 동통 職원의 가정부터 우선 개량하기로 결심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었다.⁵¹

1929년 총독부 학무과의 주관으로 시찰을 떠난 여성교원들도 시찰 소감에서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인상 깊게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밭에서 남지들과 함께 낫과 호미를 들고 일하는 여성들을 많이 보았다. 또 공장에서 노동하는 부인들이 많음을 보았다."면서, 관동대 지진 이후 도쿄의 부활도 일본 여성들의 힘에 의지한 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⁵²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일본 시찰을 다녀온 이들은 공통적으로 ① 공

50. 權寧遠, 「내지시찰감상담」, 『조선』 117호(1927.7), 62쪽.

51. 俞致福, 「내지의 優良町村을 시찰하고서」, 『조선』 93(1925.7), 43쪽.

52. 조선총독부 편집과, 『大體奉拜朝鮮女子教員內地視察記』(1929.4), 42쪽.

였다.⁵⁴ 함남 평의원 한준석韓準錫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는 “대저 내지의 문명은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메이지유신 이후의 문명이라 하지만 오인됨은 그 이전에 문명의 기초를 완전히 축성한 줄로 믿노라. 가령 산림山林으로 말할지라도 내지의 산림이 메이지유신 이후에 저와 같이 도처에 울창하였다 하면 우리조선이 앞으로 30년이나 40년을 경과한 후에 과연 저와 같은 모양으로 도처에 울창한 삼림을 볼 수 있을까 함이 의문에 속하지 않는다. …(중략)… 그것은 산림이라는 것이 당초부터 자연적으로 번식함이 아니오, 반드시 사람의 지혜를 기다리고 사람의 손을 빌려서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 사람들의 지력이 깨지 않으면 결코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유신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하였던 것이라고 보았다.⁵⁵

이와 같은 그들의 감상은 조선 사람들의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문화를 낮게 바라보았고,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과 접하면서도 그것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일본이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내지시찰’을 다녀온 이들은 일본의 울창한 삼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유물, 유적을 근거로 하여 메이지유신 이전에 일본 문명의 문명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문명에 대한 찬양이 시찰단원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던 것은 총독부에서 기획한 ‘내지시찰’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54. 李東漢, 「내지시찰감상」, 『매일신보』(1920.9.7).

55. 韓準錫, 「내지시찰감상」, 『매일신보』(1922.6.25).

그런데 시찰단원들은 단순히 일본 문명에 대한 찬양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일본 문명에 대한 찬양은 상대적으로 낙후했다고 보여지는 조선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앞서 본 것처럼 시찰단원들은 일본의 근대문명 건설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로서 일본인들의 근면성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조선의 낙후함의 이유로서 조선인의 게으름을 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 덕천군수 공탁孔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국민의 勤惰는 일쿠일가의 흥망성쇠와 지대한 관계가 있다. 금번의 여행에도 특히 깊이 느낀 것은 배지인의 일반으로 비상한 근면 상태이니, 농촌이나 공장이나 학교나 모두 자기의 직무에 여념이 없이 자자히 근로하고 있음을 보았다. …(중략)… 일본이 금일 국운의 융유희 향상 발전하고 있음은 이 국민 의 열성에 기인함이라고 느꼈다. …(중략)… 나는 항상 조선인의 결점은 실로 懶惰에 있다고 믿는 바, 속히 타성을 고쳐 착실 근면 향상 진보의 기상이 曠면에 넘연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⁵⁶

앞서 본 한준석의 경우에도 일본의 울창한 삼림을 부러워하면서 “조선의 산은 태타적^{태타적}의이오, 내지의 산은 근면적이며, 조선의 산은 척박하고 별거벗었으며^{메^메而^而禿^禿}, 내지의 산은 비옥하고 울창하니^{肥而毛} 그 산의 태타적^{태타적}의이고 척이^{척이}독^獨而^而禿^禿함은 조선인의 태타^{태타}禿^禿와 빈^빈乏^乏을 대표하는 듯하고, 그 산의 근면적이고 비이^{비이}모^모肥^肥而^而毛^毛함은 내지인의 근면과 비부^{비부}肥^肥富^富함을 대표하는 듯하다.”고 말하였다.⁵⁷

56. 孔濼, 앞의 글(1927.3), 42쪽.

57. 韓準錫, 앞의 글(1922.6.25).

하여 조선의 실정에 실망하면서도 “산이 아무리 동탁(童擧)하고 아무리 황폐하고 기옥이 왜소하고 인자(仁者)가 암매(闇昧)하여도 너의 골(骨), 너의 육(肉)이다. 이 속에 장성하였고, 너의 부(父), 너의 조(祖)가 다 이 속에 재생(再生)하였다. 비아(鄙野)하여도 너의 고향(鄕)이요, 추루(醜陋)하여도 너의 조국(祖國)이다. 네가 고향을 버리고 조국을 몰라보면 너는 남의 인자(仁者)가 아니오, 신민(新民)이 아닐까. 조국을 멸(滅)시치지 말라. 고향을 배척(背)치 말라. 네가 조국을 빛내고 고향을 강(强)엄하고 인민을 구제(救濟)하여라.”라고 한 말이 인용(引用)하고 있었다.⁵⁹ 조선을 비판하면서도 조선을 버릴 수 없는, 조선인으로서의 속명(辱名)과 자구(自救)를 위한 노력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에 일본인들에게 잘 보살피고 잘 가르쳐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함남 감신군 동인면장 감상영(金相榮)은 일본의 발전은 물질적 발전이든, 정신적 발전이든 모두 산업력과 교육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조선도 산업과 교육을 진흥케 하여 “내지(內地)와 상대되면 차별대우는 불공(不公)자(罪)不攻(自)廢(廢)되고, 융화(融和)현실(現實)은 무위(無爲)화(而)될지(化)라.”면서 조선사람들도 먼저 실력을 양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서 “근래 조선 땅에서 불량 청년(不良靑年)이 경거망동(驚擧妄動)을 감행(敢行)하는 내선(內鮮)화(和)상(上)이라든지 실업(實業) 발전(發展)상(上)이라든지 장(張)애(愛)의 도화(道化)선이 이에 막(막)심(心)하나, 이는 대체 내선(內鮮)사정(事)과 세계(世界) 대(對)세를 양(兩)해(害)치 못(不)함에 기인(起)된(因)다. 하루라도 속히 각(各)오(五)여(餘) 자(自)승(升)자(者)박(迫)을 면(免)할(將)지(不)며, 내지(內地) 현(現)형(刑)賢(賢)은 조선(朝鮮) 우(優)제(制)劣(劣)를 잘 양(兩)해(害)하고 잘 애(愛)호(護)하여 일(一)시(時)적(刻) 감(感)정(情)과 오(五)해(害)로 백(百)년(年)대(代)계(界)를 오(五)손(孫)汚(汚)攘(攘)치 않(不)음이 문(文)화(化)발(發)전(轉) 상(上) 행(行)복(福)을 자(自)구(求)함(含)인(仁)지(不)라”고 주장(張)하였다. 그는 그 외에도 일본의 민족(民族)성은 ‘공단(公團)적(的)인(仁)민(民)의 민족(民族)성(性)’ 즉(卽) 자신(自)신(身)을 사회(社會)의

59_ 韓(韓)準(準)錫(錫), 앞의 글(1922.6.25).

이처럼 일본의 울창한 산림과 조선의 벌거벗은 산, 그리고 일본의 근면과 조선인의 태만은 서로 연결되면서 결국 조선인의 자기비하와 열등감을 가져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피상적인 시찰의 결과였다. 일본의 울창한 산림과 조선의 벌거벗은 산림 사이에는 온돌과 다다미라는 난방 방식의 차이, 주된 연료의 차이가 가로놓여 있음을 그들은 보지 못하였다. 또 겉으로 보는 근면과 나태도 산업사회에서의 시간·노동에 대한 관념과 농업사회에서의 시간·노동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의 고적이 잘 보존되고 있는 데 대한 소감도 상대적으로 고적 보존에 소홀해은 조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영월의 영용환(龍喚)은 “명소(名所) 구적(舊蹟)의 절승(絶勝)함(含)보다 영구(英)히 보(保)유(有)함(含)느(느)낌(感)이 있었다. 교토(京)都(都) 오사카(大)阪(阪) 등(等) 각(各)지에 소재(在)한 신사(神社) 불전(佛殿)은 거금(巨金) 천백(千)여(餘) 년(年)에 구적(舊蹟)이 의연(屹然)하고 천원암석(泉巖)의 친연(親)미를 인제(因)酬(酬)하여 인공(人工)미(美)를 가(加)함(含)은 그 보(保)유(有)의 심력(心力)이 여(여)하다 위(謂)하(하)리(로)요. 우리 영월(寧越)에도 이(李)조(朝) 단(端)종(宗)대(代)왕(王) 행(行)幸(幸)하(하)실 때(때)에 친제(親製)하신 어수적(御手蹟)과 유관(遊)觀(觀)하(하)시(시)던 처소(處所)에 기(奇)념(念)으로 건(建)설(設)한 누각(樓閣)도 유(有)하(하)였(었)으나 지(地)금(今) 후(後)회(悔)혹(或)재(在)하(하)여 관(觀)자(者)로 감(感)회(懷)感(感)을 불(不)감(感)不(不)權(權)케 하니 이(我)俄(俄) 조선(朝鮮)인(人)朝鮮(鮮)人(人)에 구적(舊蹟) “보(保)유(有)심(心)原(原)有(有)心(心)이 무(無)함(含)은 추(推)차(差)가(可)지(知)라.”고 말(말)하(하)였다.⁵⁸

이처럼 일본 시찰은 결국 조선에 대한 비판 혹은 성찰, 더 나아가서는 자기비하와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위에서 본 함남 도평의원 한준석(韓準錫)은 한말의 도미 유학생 이계필(李啓弼)이 귀국

58_ 嚴(嚴)輔(輔)煥(煥), 「內地(內)視(視)察(察)所(所)感(感)」, 『매(每)일(日)신(新)보(報)』(1922.9.6).

공유물로, 국가의 희생물로 자처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충성하는 마음이 강한 반면에, 조선의 민족성은 사회관념과 국가사상이 막약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모교주의적(幕古主義的)이며, 의타적이고 자포자기적이라 대비하기도 하였다.⁶⁰ 3·1운동을 ‘불량청년배의 경거망동’이라 부르면서 내선융화를 위해 ‘내지内地 현형(賢兄)’이 ‘조선朝鮮 우제(愚弟)’를 잘 양해하고 잘 애호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총독부는 이와 같은 내지시찰단 파견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1927년 총독부 내무국장은 군수시찰단에 대한 훈시를 통해 “(그동안의 군수시찰단의) 시찰의 결과는 모두 상당한 효과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금번도 그것에 비추어 제군을 내지에 파견하여 친히 내지문물의 적(跡)을 시찰케 하는 바이다. 물론 제군은 직접 일반 민중과 접함으로 일거수일투족은 그 반영하는 바 극대하다. 고로 항상 민중과 접함에 친절 성의를 피력함은 물론이요, 시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신지식을 흡수하려면 잡지 신문의 이용, 혹은 건문을 넓혀서 민중의 지도(指導) 유용(유용)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⁶¹

2) 도시의 근대적 시설에 대한 소감

‘내지시찰단’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일본의 대도시들이 모여 있고 있던 ‘근대상’이었다. 그들은 특히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당시 말하던 이른바 ‘선진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른바 ‘선진 도시’의 모습은 여러 시설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다. 관청 건

60. 金相燾, 「内地觀察로부터 歸(回)來」, 『조선』 77(1924.2), 61~62쪽.

61. 孔濯, 앞의 글(1927.3), 44쪽.

물, 공원, 백화점, 철도역과 지하철 등 교통시설, 신문사와 방송국, 대규모 식당 등 이른바 ‘문명화된 시설’에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1) 변화기와 백화점 시찰 소감

그러면 그들은 그러한 ‘문명화된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우선 도시에서 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변화기와 백화점들이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사실상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본은 호경기를 맞이했고, 이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였다. 공장노동자, 서비스산업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모여들었다. 인구 2백만이 넘는 대도시가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 대도시에는 이제 소비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서 상점가와 백화점들이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거리는 도쿄東京의 긴자銀座, 오사카大阪의 신사이바시心齋橋 등이었다. 이들 도심 변화기에는 물론 백화점들을 비롯하여 갖가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들 상점가는 쇼윈도에 의복, 모자, 완구, 시계, 신발 등을 진열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또 이들 거리에는 깃다점, 서점, 화랑, 카페 등도 섞여 있어 도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했다.⁶² 그리고 이들 거리에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고층빌딩이 즐비하게 서 있었다. 빌딩 건축은 1910년대 미쓰코시三越백화점의 건축으로부터 붐이 일기 시작하여, 1923년 도쿄대지진 이후 도쿄에서 는 많은 백화점들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 인해 도쿄와 오사카 시

62. 橋爪紳也, 『モダン都市の誕生』(吉川弘文館, 2003), 8~17쪽.

내에는 미쓰코시三越, 마쓰자카야松坂屋, 다카시마야高島屋, 시로키야木屋, 다이마루丸 등 고층 빌딩의 백화점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⁶³

1920년대 조선의 경성에서도 백화점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1926년 히라다백화점平田百貨店이 첫 개업을 하였고, 1929년 조지야백화점丁字屋百貨店, 미나키야오복점三井吳服店, 미쓰코시백화점三越百貨店 등이 개점하였다. 그러나 백화점다운 백화점이 등장한 것은 1930년 미쓰코시 백화점이 진고개 입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대규모 신관 건물을 준공하여 개점하면서부터였다.⁶⁴ 조선인 박홍식이 세운 화신백화점 건물이 종로에 들어선 것은 1932년이였다. 따라서 1920년대 내내 조선에는 백화점다운 백화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러일전쟁 직후부터 도쿄, 오사카 등 산업혁명과 인구집중을 배경으로 한 대도시가 등장하면서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미쓰코시三越, 다이마루丸, 다카시마야高島屋, 마쓰자카야松坂屋 등을 중심으로 백화점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아직 백화점이라는 말보다는 오복점吳服店과 같은 용어가 더 많이 쓰였다. 각기 주 고객층을 달리하면서 이들 백화점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다이쇼 9년, 즉 1910년대에 들어서서 백화점들은 자기 상표를 내걸고 고급 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으며, 백화점의 주 고객으로서 상류층과 중·산층을 확실히 설정하고, 백화점의 ‘고급’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 가운데 백화점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미쓰코시三越가 1914년 도쿄에 신관 건물을 준공하여 개관하였다. 지하 1층, 지상 6층

63_ 初田亨, 『百貨店の誕生』(三書堂, 1993), 98~114쪽.

64_ 오진석, 『일제하 백화점업계의 동향과 관계인들의 생활양식』,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해안, 2004), 127~128쪽.

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르네상스 양식에 바로크 양식을 가미한 현대적이며서 동시에 매우 화려한 건물이었다. 이후 다른 백화점들도 이를 본떠 건축 건물들을 지어 올렸다. 새로운 백화점 건물에는 “단순히 매장만이 아니라 식당, 전람회장, 강연장, 옥상정원 등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11년 시로키야木屋는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 1914년 미쓰코시三越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백화점은 고급 소비문화의 장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⁶⁵

조선인 시찰단 일행은 오사카와 도쿄에 가면 반드시 미쓰코시오복점三越吳服店이라는 최고급 백화점에 들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밖에도 시찰단은 도쿄에서 이세탄오복점伊勢丹吳服店, 오사카에서 미쓰코시오복점三越吳服店, 다이마루오복점大丸吳服店 등을 둘러보았다. 이들 백화점은 두 도시의 변화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두 도시의 변화가 또한 일본 시찰단 일행이 꼭 둘러보는 곳이었다. 시찰단은 대개의 경우, 하루 일정이 끝나면 일행을 이들 변화가에 풀어놓고 자유시간을 주어 이들 변화가를 구경하게 하였다.

1922년 강릉 유생으로서 강원도 유도개명회의 일원으로 도쿄를 다녀온 김재익金在翼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三越吳服店에 至하여 8層階에 踏上하니 百萬 家戶가 眼前에 森羅하고, 4階平地에 山色을 不見하며, 본정은 도쿄 상점중 일대 장관이라. 萬種 物品에 櫻花로 飾場하며, 自動乘降階가 有하니 仙源佛界를 夢幻에 入한 듯하다.⁶⁶

65_ 初田亨, 앞의 책(1993), 98~114쪽.

66_ 金在翼, 『内地觀察概要』, 『儒道』 7호(1922.6), 83쪽.

그는 백화점을 둘러보면서 “꿈속에 선원불계(仙源佛界)에 들어온 듯하다.”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1924년 연백군 면서기로서 도쿄를 둘러본 이종소(李鍾韶)는 다음과 같이 도쿄의 변화가의 빌딩과 백화점을 둘러본 소감을 기록하였다.

東京 駅前 丸の内(미루노우치)빌딩을 구경하니, 이는 三菱(미쓰비시)회사의 경영으로 철골연와조 10층인데, 총 평수 1만8천 평으로, 건축비 1천만 원이요, 사무소가 350이며, 수용 인원은 1만 명 이상이라는데, 병원, 우편국, 은행, 식당까지 설비된 일개의 家술며, 駿河町에 있는 三越(미쓰코시)의 옷, 各樣의 상품을 진열한 외, 도안부, 의장부, 의복부, 사진부, 율예부이며, 기타의 식당, 휴게실, 주악실의 설비가 정비되었으니, 실로 전국 제일의 백화점이니, 荆玉(영금)이 그 값을 싼하고, 吳姬(오녀)가 그 態를 揚하니, 천하의 寶와 천하의 美가 이에 盡하였으며, 8층 上階에 時時 奏樂함을 들음이 廣塞 殿에 姬(여)의 覺裳(여의)를 듣는 觀이 有하다.⁶⁷

미루노우치 빌딩과 미쓰코시 백화점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특히 후자를 ‘천하의 보물과 천하의 아름다움이 다 모인 곳’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자본주의와 근대성의 상징인 백화점에서 그들은 자본주의와 근대성의 화려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이다.

도시 변화가의 또 하나의 구경거리는 야경(夜景)이었다. 1910년 이전까지 일본에서도 조명등은 전등, 가스등, 석유등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 미국의 G.E가 백열광을 뽑는 텅스텐 전구를 개발, 전력사용을 크게 줄이면서 일본에서도 전등 사용이 일반화

67. 李鍾韶, 「内地觀察로부터 歸りて」, 『조선』 76(1924.1), 121쪽.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24년에는 호수의 79%, 1932년에는 91%가 전등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1910년대 후반 이후 상점가에도, 급속도로 전등이 보급되었고, 이는 결국 이들 변화가의 ‘야경(夜景)의 탄생’을 가져왔다. 그리고 상점가에는 갖가지 모양을 한 가로등이 커졌다. 또 당시 유행하고 있던 박람회장들이 야간 개장을 하면서 전등을 화려하게 장식한 일루미네이션도 등장하였다. 그리고 건물조명, 분수조명, 교량조명 등이 차례로 등장하였으며, 1920년대 후반에는 네온사인도 도입되었다.⁶⁸

따라서 일본 대도시 여행에서 이러한 야경의 구경은 빠질 수 없는 코스였다. 1922년 도쿄를 방문한 강원도 유생 김재익(金在翼)은 이렇게 도쿄의 야경을 묘사했다. “우에노역(上野驛)에서 석반(夕飯)하고 우에노공원을 역과(歷過)하니 찬란한 야경(夜景)은 등화(燈火)만종(萬叢)이 최상권(上位)의 權威(權威)으로 더군다나 와사기(瓦斯機)를 발사하여 침침(沈沈)한 허공(虛空)에 쌍홍(雙虹)이 투섬(透射)하며, 혹은 일부 공원은 분화산(噴火山)광세(光勢)로 변화(變化)되었다.”⁶⁹ 그는 우에노 공원의 야경을 보면서 분화산과 같다고 말하고 있었다.

(2) 공장 시찰 소감

일본 시찰단이 일본의 대도시에서 두 번째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아마도 ‘수많은 공장’일 것이다. 특히 일본 제1의 공업도시인 오사카에서 시찰단은 여러 공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깊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이 아직 일반적인 산업이고, 이렇다

68. 橋爪紳也, 앞의 책(2003) 참조.

69. 金在翼, 앞의 글(1922.6), 85쪽.

할 공장이 없던 조선에서 건너간 이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1927년의 군수 시찰단은 시모노세키에 건너가자마자 바다 건너 모 지門市에 가서 아하다제철소를 방문하였다. 이 제철소는 1901년 문물 연 제철소로서, 총 면적 174만 3천 평에 달하는 면적에, 직원 994명, 용원 1469명, 직공 17,221명, 임시직원 1일 평균 7746명을 고용하는 동양 최대의 제철소였다. 이 제철소에 대해 덕친군수 공탁孔濼은 “이 것이 원동력이 되어 내지 각종의 공업을 발흥 조장케 하는 바 위대하다 운도할지며”라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⁷⁰

공탁은 일본의 공업 발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

今般 内地에 들어가 특히 깊이 느낀 것은 공업의 왕성함이다. 공업의 般盛은 오로지 大阪, 名古屋, 福岡, 東京과 같은 도회지뿐만 아니라, 여하한 소도시라도 종일 煙筒에서 黑煙을 도하지 않음은 없다. 시험삼아 여행 중 一 小都市에 하차하여 그 역내 매점을 들러다 볼 때는 필히 그 지방의 특산품이 있다. 福岡 八幡製鐵所, 大牟田, 萬田 三菱 採炭所와 같은 곳은 언어로써 다할 수 없는 대규모의 공업임에 대하여는 그저 경탄할 수밖에 없다.⁷¹

시찰단은 오사키에 가면 대체로 조폐국, 방적회사, 비료회사, 성냥공장, 육군포병공창 등을 시찰하였다. 정평군의 이현대李鉉臺는 오사키의 공업에 대해 공장수는 2만349개이며, 직공수는 18만 4582명, 제산액製鐵額은 8억 5493만2천 원에 달한다면서 이 숫자는 모두 과학科學

70. 孔濼, 앞의 글(1927.3), 46-47쪽.

71. 위의 글, 38-39쪽.

의 결정結晶이므로 과학을 전공하는 학교도 많고, 이를 일층 장려하기 위해 화학공업박람회, 전기공업박람회, 과학전람회 등을 종종 개최하여 일반이 둘러보게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그는 자신도 이번 시찰에서 도쿄의 화학공업박람회, 오사키의 전기공업박람회와 과학전람회를 관람하면서, “학식이 없는 인족人族은 이 세상에 공존치 못할 것을 통렬히 느꼈다.”고 쓰고 있었다.⁷²

시찰단 가운데에는 고베神戸에 들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역시 공업 도시인 고베도 깊은 인상을 주었다. 강릉 유생 김재익은 “고베神戸에 당황하니 공장工場 용연煙燻이 해장海醬을 상흔相輝하야 친일天日이 응폐 壅蔽한데, 좌해우산左海右山을 창졸蒼卒 난분難分”하다고 하여, 공장의 매연이 자욱한 모습을 묘사하였다.⁷³

그런데 당시 시찰단들은 비록 매연이 자욱하더라도 공장이 많은 일본을 부러워하였다. ‘강원도 내지시찰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권영달權寧達은 “금반 내지 시찰에 특히 깊이 느낀 것은 공업의 발전이다. 오사키,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와 같은 도회지뿐만 아니라 소도회라도 동일 연통煙筒으로 검은 연기를 뿜지 않는 곳이 없으니”라고 하여, 일본의 공업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에서도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조선의 현상을 고찰하면 경성으로부터 부산까지의 각 도道를 통관通觀함에 고대高大의 연통煙筒이 없음에 따라 매일 청천淸天임을 볼 수 있을지라. 연然이나 시모노세키시關부터는 어느 곳 이든지 연통의 흑연黑煙으로 인하여 청천淸天의 날이 없는지라. 이를 보면 내지의 공업발전과, 조선의 공업工業 미진未進은 명확한 것이다.

72. 李鉉臺, 앞의 글(1926.7), 60-61쪽.

73. 金在翼, 앞의 글(1922.6), 78쪽.

나의 열망하는 바는 조선의 공업 진전을 기함에는 첫째 자본가의 분기를 기다리지 아니치 못할 것이라. 자본가 각위는 착안할 바를 열망하노라.”라고 하여, 조선에서도 비록 매연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공업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⁷⁴

덕천군수 공탁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공업이 크게 발전하여 “국내가 모두 자작자금을 하며, 또 국외에 그 잉여를 공급하니, 나라가 부흥치 않으려도 할 수 없거늘, 하물며 이에 또 농산, 광산, 임업 등이 풍유함에리오. 돌이켜 조선의 현상을 보건대,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 기타 전반을 내지인에게 의존치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은 실로 한심에 불감不慚할 바이다. 그러나 공업의 진보를 기함에는 첫째 자본가의 분기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즉, 현재 조선인 자본가인 계군은 이 대국大局에 착안하여 종래의 타면情態를 탐하며 소작인만 학대함을 폐하고, 분명히 쫓기하여 크게 타他에 대하여 조선의 부력을 증진함에 노력치 아니하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⁷⁵

(3) 교통·공원·사회복지 시설 시찰 소감

그밖에도 시찰단 일행은 일본의 대도시에서 보고 느낀 사회가 많았다. 예를 들어 교통기관의 발달, 공원의 정비, 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의 정비 등이 그런 것들이었다.

교통기관의 발달에 대해 최승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지의 교통이 편리함에 대하여 감상이 선발先發하였나니, 그 도로 교량은 극히

74. 權學達, 「내지시찰감상담」, 『조선』 117호(1927.7), 60-61쪽.

75. 孔濯, 앞의 글(1927.3), 39쪽.

완비되어 대도회지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필요처에도 국유철도 혹은 사영철도가 있으며, 대도시에는 대개 시외에도 전차가 있고, 또는 자동차, 인력거, 자전거 혹은 우마차 등이 있어 교통에 하등 불편이 없음은 물론이오, 여하한 향촌이라도 차가 통하지 못하는 곳은 없는 상태이라.”라고 하여, 도회지뿐만 아니라 농촌의 교통도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전하였다.⁷⁶

완도의 박노훈은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관사官私 전 철鐵鐵이 중황으로 부설됨과 전선電線이 거미줄처럼 가설됨과 도로의 정비됨은 안공眼孔이 현황하고 심리心理 착잡할 뿐이다. 도회의 시설은 막론하고 촌의 시설을 들면 산간벽지의 일 소촌이라도 국현國縣 도로道路는 물론하고 촌村의 도로도 전부 한 간뎀 이상의 폭이 되며, 교량 등은 전부 돌로 축조하였고, 고갯마루의 도로는 굴곡으로 만들어져 있어 자동차가 능히 통행”한다고 전하였다.⁷⁷

시찰단 일행이 대도시에 가서 특히 자주 들른 곳은 공원公園이었다. 일본의 공원은 메이지유신 이후인 1873년 정부의 ‘공원제도’ 포고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공원으로 된 땅들은 대부분 사시寺社의 경내로서 이전부터 사실상 공원과 같이 이용되어 오던 곳들이었다. 이에 따라 도쿄에는 센쇼지淺草寺(아사쿠사淺草公園), 칸에이지寛永寺(우에노上野公園), 즈우쥬지増上寺(지마츠公園), 히치만지八幡寺(후키가와쵸川公園) 등이 공원으로 만들어졌다.⁷⁸ 그리고 1905년 이후 이른바 시구개정 사업을 하면서 도시의 작은 토지들을 이용한 공원들이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공원인 히비야田比谷公園은 본래 연병장 부지였

76. 崔升鎭, 앞의 글(1926.3), 54쪽.

77. 朴魯勳, 「内地視察後の所感」, 『조선』 80호(1924.5), 64쪽.

78. 小野良平, 『公園の發生』(吉川弘文館, 2003), 10-11쪽.

다.⁷⁹ 1920년대 도쿄東京에는 모두 80여 개의 공원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인 시찰단원들이 많이 찾은 공원은 히비야공원, 신주쿠교엔新宿御苑, 우에노공원과, 교토의 교토교엔京都御苑 등이었다. 도시에는 이들 공원 외에도 운동장, 연극공연장 등의 여러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최승호는 “공원, 신사, 운동장, 연극장, 오락 등의 시설이 있어 일반 인민으로 하여금 어떤 때는 율적인 심화를 화창케 하며, 어떤 때는 산보를 하여 풍경의미를 탐하게 하는 등 일상의 생활을 쾌락과 안락으로 하여 신체를 건강케 하고 정신을 위안케 하더라.”고 부러움을 표시하였다.⁸⁰ 권영달權寧達도 공원에 대해서 “도시의 혼잡한 사회에 있어서는 공원의 설치가 처처에 유하고, 그 부설로는 반드시 오락장이 있으므로 일반이 심신의 위로 및 수양을 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⁸¹

도시의 사회복지 시설, 당시 말로는 사회사업 시설도 그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현태는 “내지는 문화의 진보에 따라 각종 사회사업을 시설하고, 무고한 공민窮民을 구제하여 소감이 없게 하는데, 오사카에서 유아원乳兒院을 시찰하니, 이는 빈민의 가정에서 유아乳兒가 있기 때문에 취업에 지장이 있는 자의 편의를 생각한 것”이라면서 높이 평가하였다. 그밖에도 그는 직업소개소, 시영공동숙박소, 시영주택, 시영이발소, 시영탁아소, 시영산원市營産院, 시영육탕市營浴場 등 오사카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나열하기도 하였다.⁸²

79_ 위의 책, 92-102쪽.

80_ 崔升鍊, 앞의 글(1926.3), 54쪽.

81_ 權寧達, 앞의 글(1927.7), 60쪽.

82_ 李鉉台, 앞의 글(1926.7), 61쪽.

3) 사찰寺刹 · 신시神社 · 역사유적에 대한 소감

(1) 사찰 · 신사 시찰 소감

시찰단은 여행 과정에서 사찰과 신사를 가장 많이 들렀다고도 할 수 있다. 교토와 나라, 뿐만 아니라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닛코 등지에서 그들뿐 아니라 사찰과 신사를 들렀다. 시찰단원들은 이곳들을 둘러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충남내지시찰단의 한 사람으로 일본을 다녀온 유치복俞致福은 “대지 내지內地는 일반적으로 경신존불敬神尊佛이 유진성이라 함은 오인됨人의 공지하는 바이다. 신궁神宮과 불사佛寺 등의 건물이 청려淸麗하고, 위치로는 모두 산고수려山高水麗하여 절승絶勝한 풍경이 무비선경無比仙境으로서, 역대의 충신, 영웅, 의사들의 봉사소奉祀所이다. 관람자로 하여금 존불경신尊佛敬神의 의의를 감화케 하는 그 광대한 설비가 더욱 화려하다.”고 말하였다. 신사와 사찰의 존재 의미, 그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⁸³

원도의 박노훈은 다음과 같이 신사와 사찰의 사회교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높이 평가하였다.

내지의 神社와 佛寺이며, 公園 및 娯樂場이 村마다 설치되었는데, 이를 시찰하고는 자연히 사회교화의 감이 생하겠으니, 천차만별로 심리가 변화하는 우리 인간은 학교와 가정의 교육이 여하히 주일할지라도 도덕성의 함양이 부족하고, 법률의 제재가 비록 여하히 엄중하나 단지 일시적인 경계에 불과함이 도저히 양심의 政過를 얻지 못하나, 神社와 佛寺에 誦經 參拜하는 그

83_ 俞致福, 「内地의 優良町村을 시찰고서」, 『조선』 93(1925.7), 44쪽.

사이에는 神佛의 오묘한 암시에 감응되어 심신이 자연히 泰和하며 정이 자연히 집중되는 고로 천부의 양심이 발전되는 동시에 인류의 가장 귀한 도덕성이 은연히 함양되나니.⁸⁴

신사와 불사가 인간을 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도덕성을 함양하게 하는 사회교화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김재교金在教도 나라와 교토를 둘러보고 일본 불교와 사찰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우선 “과연 일본은 불교의 천지가 다. 하처히촌何處何村을 물론하고 불각佛閣이 없는 곳이 없으며, 하인何人을 물론하고 신자信者 아님이 없어서, 심지어 촌제村制까지 불당佛堂에 매일 참여參詣할 것이 일 규칙이 되었고, 감옥의 매일每日 강화講話에도 불교를 이용하니, 일본인의 소위 일본은 불교가 진흥치 아니 할 시는 멸망한다 함이 과연이 아니더라.” 하며, 일본은 불교의 나라라고 전하였다. 이어서 그는 “실로 일본은 건설적이다. 서양문명을 수입한 유신 초에 각 제도를 변경하여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되 오직 불교에는 충일충愚一愚 발전을 도모하였으니, 일러·일칭 양대兩대 전쟁戰爭에 승리를 거둬도 불교의 은택이다. 간촌맹민殘村氓民까지도 당시 전쟁을 위하여 불전佛殿에 기도하여, 힘이 미치는데도 공급하였 으며, 말이 기로岐路에 흐르나 일본의 금일 강국強國에 열케함도 이 양 전쟁의 결과이다.”라고 하며, 불교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박노훈은 이어서 조선의 유교를 일본의 불교와 비교하였다. 그는 “조선의 국교인 유교儒教는 어떠하였는가.”라고 반문하고, “기탄없이 말하자면, 파괴적이다. 상하 오백년

84. 林魯勳, 앞의 글(1924.5), 64쪽.

간에 흥왕한 때도 있었으나, 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행하며, 기독교가 수입되어 사상계가 혼돈되어 시기, 질투, 권세의 경쟁으로 일을 샅샅이 으며, 감옥의 동란騷亂 이후로 지방의 향교도 유아무야 폐지되었다가 근시에 법령상으로 향교를 시인하여 유교를 부흥코저 하되, 오직 노후한 학자로서 현세를 집착하여 종지宗旨를 선전하며, 교무를 진행할 줄을 모르고 다만 심중팔구는 권세의 암투에 골몰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⁸⁵

덕천군수 공탁孔濼도 “조선의 역사를 보아도 불교가 후세의 사람을 당악醜若케 할 만큼 숭고한 어느 것을 창작치 아니하였는가. 내지 금일의 문명은 겨우 50년간에 건설한 것으로서, 각국이 모두 경탄하는 바이다. 이 혹은 국민 일반의 경신敕神의 관념이 왕성함에 말미암아 혹 강한 지력이 있음은 아닐까.”라고 하며, 조선 역사에서도 불교가 훌륭한 미술을 만들고, 국민의 의식을 하나로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서 불교를 찬양하고 있었다. 일본의 불교에 대한 찬양이 조선의 유교에 대한 비판과 불교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5백 년 내내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배타적으로 지켜왔던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제 유교를 비판하고 불교를 찬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사례였다.

(2) 역사유적 시찰 소감

시찰단 일행은 또 역사유적들도 상당히 많이 둘러보았다. 역사유적은 주로 친황 관련 유적이니,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

85. 金在教, 「내지시찰감상담」, 『조선』 96(1925.10), 61~62쪽.

스 관련 유적지들이었다. 천황 관련 유적으로는 도쿄의 궁성宮城·메이지신궁明治神宮, 교토의 고쇼御所·모모야마어룡桃園御陵·카시하라신궁梶原神宮, 이세伊勢의 이세신궁伊勢神宮이 가장 중요하였다.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사카성,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조궁東照宮과 나고야성 등이 그러한 곳들이었다.

시찰단은 교토에 가면 메이지천황의 묘인 모모야마어룡을 들렀고, 도쿄에 가면 반드시 메이지신궁을 들렀다. 그들은 이러한 곳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아쉽게도 이러한 곳들을 둘러보고 쓴 글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몇몇 사람의 글을 통해 그들의 소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백군 면서기 이종소는 “모모야마桃園는 메이지천황 밋 소헌황태후의 어룡영靈을 봉축한 어룡御陵이니, 3단계 어룡御塚에 수만 개의 작은 돌로 망쳐하고, 전면前面은 화강석에 2중 옥원玉垣이라, 장엄 화려함이 만세萬世의 영경靈境”이라고 쓰고 있다.⁸⁶ 감산군의 면장 감상영은 “궁성宮城, 신주쿠교엔新宿御苑, 모모야마어룡桃園御陵에 참배의 투허를 얻음은 일시동인-視同仁의 황은皇恩”이라면서 이에 감을 한다고 쓰고 있었다.⁸⁷ 신주쿠교엔, 모모야마어룡 등은 이미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서는 조선인으로서 이러한 곳을 둘러보게 된 것을 대단한 특권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던 듯하다.

메이지천황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지인 야스쿠니靖國神社神社 앞에서 시찰단들은 어떤 감회를 가졌을까. 강릉 유생 김재익金在翼은 “이 신사神社는 일청, 일러 전쟁 전망장將亡將卒을 안위安慰한 곳이며, 대포 창검의 고금 우열 표시며, 전역戰役 시 성공 軍기軍器와

노기대장乃木大將 자처自處 시 유서 복장이며, 전망장戰亡將 초상실肖像室이며 청도靑島 함락 시 쓴 비행기 1대와 독일병기 획득 전부와 조선총포 갑주를 차례次第로 시찰하니, 무기武氣가 방에 가득 차고 한풍寒風이 자생하여 이와 같은 우포성전優褒盛典이 온 나라의 훈양장졸訓養將卒로 충간의담忠肝義膽이 발연흥기勃然興起케 하리도다.”라고 하여, 그와 같은 시설을 찬양하고 있었다.⁸⁸ 그는 야스쿠니신사 앞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한편 오사카성大阪城도 시찰단의 필수적인 코스 중의 하나였다. 김재교는 오사카성에 오른 느낌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관백關伯 풍신수길豊臣秀吉이 도읍을 정하고 천하를 호령하던 곳이다. 안으로는 천하를 응시하고, 밖으로는 조선과 간과干戈를 교차하여 소위 조선 임진 8년 지란이 연상된다. 성곽이 미술의 색채를 띠어서 견고한 것이라든지, 건축물의 광대한 것이며, 평탄한 땅에 성대城臺를 축조한 것 등 풍공豐公 당시의 기세를 짐작하겠다.”⁸⁹ 임진란이 오래된 옛 일이어서였을까. 그에게는 그 이상의 특별한 감회는 없었다.

시찰단원들 가운데 일본의 사찰이나 신사의 건축미에 대해 거론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현태는 “내지는 역사의 재료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고건물이 많아, 천 년 전 역사를 말하는 것이 교토·나라에 가장 많으며, 닛코산日光山 동조궁東照宮 양명문陽明門과 같은 것은 덕천씨德川氏의 패업霸業으로 천하의 美를 다하고, 사방四方의 보寶를 모아서 조영造營한 것인데, 그 미술의 정화가 실로 세계의 위관을 작작하였으니, 일본 고대 미술이 그와 같이 발전된 것을 감탄하였으며, 당시의 미술

88. 金在翼, 앞의 글(1922.6).

89. 金在教, 앞의 글(1925.10), 60쪽.

86. 李謙韶, 앞의 글(1924.1), 113쪽.

87. 金相潛, 앞의 글(1924.2), 59쪽.

이 불교로 인하여 발전된 것을 추상하였다. 조선 고려시대의 문명적 미술이 조선에서 구축·驅逐되어 부상·扶桑에 왔다는 느낌이 일어났다.” 고 썼다.⁹⁰ 그는 일본 중세 미술의 훌륭함을 찬탄하면서, 고려의 미술은 조선양조 이후 불교가 탄압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와 버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공탁(孔澤)은 내지시찰의 중요한 인상으로서 일본인들의 ‘미술적 관념’을 들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성질, 취미, 정조 등은 대개 산천, 지형 등에 자연히 감응함이 많은 바, 내지인은 그 산천, 지형과 같이 비상이 미술적 관념이 풍부함을 인정하였다. 여행 중 여관에 투숙하여 실내의 장식 기타 제반 생활상태를 보아도 제 방면에 미술적 관념의 표징(表徵)이 아님이 없었다.”면서, 일본인들의 미적 감각이 생활 속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⁹¹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식민지시기, 특히 1920·30년대 총독부나 각 도에서 주관한 ‘내지시찰’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일본관을 만드는 데 큰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일본 시찰 여행에는 군수, 면직원 등 관리층을 비롯하여, 도평의원, 면협의원 등 관변의 공직자들, 그리고 교원, 청년회원, 유교개명회원, 금융조합 임원 및 직원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관

리들이나 관변의 인물들로서 총독부에 이미 협력하고 있거나 앞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기도 하였다.

내지시찰 여행의 코스는 시모노세키(下關) - 오사카(大阪) - 교토(京都) - 나라(奈良) - 도쿄(東京) - 닛코(日光) 코스가 일반적이었다. 이 코스 가운데 오사카는 근대적인 도시로서, 교토와 나라는 역사도시로서, 도쿄는 두 가지 모두의 의미에서, 그리고 닛코는 휴양지와 역사유적지로서 의미를 각각 갖고 있었다. 이밖에도 나고야(名古屋), 고베(神戸), 쿠레(呉)와 같은 산업 도시나 군사도시, 그리고 우량 농촌 마을이 시찰코스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일본 시찰을 다녀온 이들은 공통적으로 ① 공업의 발달, ② 울창한 삼림, ③ 근대화된 도시, ④ 많은 신사와 사찰, ⑤ 정비된 경지와 잘사는 농촌, ⑥ 교육기관의 정비, ⑦ 편리한 교통, ⑧ 여성노동 등을 주된 소감으로 꼽았다. 또 일본사람들은 근면하고, 일본의 고적이 잘 보존되어 왔다는 것도 그들의 소감에 들어 있었다.

‘내지시찰’의 가장 큰 충격은 일본의 대도시들이 보여주고 있던 놀랄만한 ‘근대성’이었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들은 이미 ‘모던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관청가와 번화가의 고층 빌딩, 백화점의 각종 현대적 시설, 대도시의 야경과 이를 구경나온 인파 등은 아직 ‘모던 도시’를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철도와 전차, 지하철과 같은 편리한 교통시설과 정비된 도로 등도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또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에도 많은 공장이 들어서 골목에서는 매연이 피어오르고, 여자들이까지도 공장에 서 일을 하는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근대 도시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근대성’의 포로가 되어 간 것이다.

⁹⁰ 李鐵台, 앞의 글(1926.7), 61쪽.
⁹¹ 孔澤, 앞의 글(1927.3), 42쪽.

‘내지시찰’의 또 하나의 주요한 코스는 일본의 문화유적지들이었다. 친황이나 소군과 관련된 역사유적, 수없이 많은 신사와 사찰 등은 그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문화적 충격을 갖게 하였다. 유교만을 신봉하고 불교를 탄압해온 조선사회와는 다른 불교와 신도의 문화를 일본은 갖고 있었다. 시찰단원들은 일본의 불교^{佛敎}와 신도^{神道} 문화를 찬양하고, 반면에 조선의 유교^{儒敎} 문화를 비판하였다. 그것은 일본의 불교와 신도가 종교적인 기능 외에도 국가주의를 고취하는 구실을 해온 반면, 조선의 유교는 그러한 기능을 해오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은 일본의 문화유적, 특히 건축물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유적을 잘 보존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탄했다. 나아가 그들은 메이지유신 이전의 일본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전에 이미 상당히 발전된 사회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조선 사람들의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의 일본 시찰은 결과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시찰을 다녀온 이들은 소감문에서 대체로 일본에 대한 신망과 조선에 대한 비판 내지는 반성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자기 분발의 다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 비하와 열등의식의 고착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내지시찰’을 주선한 총독부로서는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교육과 산업의 진흥이나 우량농촌의 건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복종과 완전한 일본인으로서의 동화 쪽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쪽이든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었다. 따라서 총독부 고위관리들은 ‘내지시찰’ 사업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내지시찰’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점에서 일본측으로서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참고문헌

- 『메일신보』 「조선(조선문, 일본문)
조선총독부 편집과, 『大韓羣拜朝鮮女子秘眞內地勝蹟記』, 1929.4
大江志乃夫, 『構國神話』, 岩波新書, 1984
初田亨, 『巨賈店の誕生』, 三省堂, 1993
橋爪紳也, 『モダン都市の誕生』, 吉川弘文館, 2003
강재인, 『조선통신사의 일본건문록』, 한길사, 2005
- 조성윤, 『“메일신보”를 통해 본 1910년 일본시찰단』, 『한일민족문제연구』 6, 2004
오진서, 『일제하 백화점업계의 동향과 관계인들의 생활양식』,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해안, 2004
박양진, 『일본의 한국 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공단과 그 성격』, 『동양학』 3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5
한규무, 『한일, 한국의 일본관공단 연구(1909-1910)』, 『국사편찬총서』 107, 국사편찬위원회, 2005